

## 2년연속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선정 취업-창업 지원역량 뛰어난 '청년드림' 최우수대학

### 2014년 동아일보-채널A 딜로이트 대학평가

### 고려 서강 서울시립 우송 産技大

### 작년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선정 가천 건국 등 15곳은 우수대학에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실시한 2014년 청년드림대학 선정 결과, 성균관대 순천향대 인하대 충북대 한양대(가나다순)가 새로운 최우수 대학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

대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청년드림대학은 재학생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의지와 역량을 살펴보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평가다.

2년 차를 맞는 올해 청년드림대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우수한 49개 대학을 골라 평가를 진행했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49곳에 불과한 청년드림대학에 이름을 올린것만으로도 대학이 재학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징표다. 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과 관련된 인프라, 재학생의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심층 조사해 취업 및 창업 지원역량을

평가했다. 여기에 취업률을 접목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청년드림대학을 찾아냈다.

10곳의 최우수 대학은 대학의 지원역량과취업률 모두 상위 40%에 들었다. 이어 지원역 량과 취업률이 모두 70%에 드는 15곳이 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가천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서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세종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한국외국어대 한림대가 우수 대학이다.

24개 청년드림대학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경력 설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창업에 관심을 쏟아 교과과정을 짜거나 동아리

를 지원할때 특화된 전략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업률을 배제하고 대학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역량만 놓고 보면 가천대 동아대 서강대 순천향대 영남대 **우송대** 울산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림대가 상위 10곳에 들었다.

청년드림대학은 입시 성적 순위, 대학의 연구력 순위 위주로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을 깨고 '학생이 원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대학 평가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교수들의 연구력 및 재정 지표 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청년드림대학은 대학의 취업 창업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그 순위도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드림대학 특별취재팀

2014 청년드림대학 평가 결과 가나다순.

<b>최우수 청년드림대학</b>	성균관대 순천향대 인하대 <b>충북대</b> 한양대 (신규 진입 최우수 대학)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b>우송대</b> 한국산업기술대 (2년 연속 최우수 대학)
<b>우수 청년드림대학</b>	가천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서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세종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한국외국어대 한림대
<b>청년드림대학</b>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남서울대 단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KAIST 포스텍 한경대 홍익대

## 해외기업에 다리 놓고... 청년CEO 길 열어

2년 연속 최우수 대학



### 외국 기업과 손잡고 해외 인턴십 지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해외 기업 취업을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우수 대학들은 체계적으로 재학생과 해외 기업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 학생 수요를 읽은 맞춤형 전략

지난해 청년드림대학 평가 과정에서는 대학들이 학생의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지원은 급변하는데 대학은 공급자 중심의 과거형 취업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었다. 올해 청년드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학생들의 특성을 따져 발 빠르게 맞춤형 취업전략을 설계했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 남다른 프로그램이 일자리의 열쇠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독특한 프로그램도 취업문을 여는 비결의 하나. 건국대의 '캠퍼스 CEO 육성사업'은 벤처창업에 대해 막연히 관심만 있던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특강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했다. '프런티어 창업솔루션' '블루오션과 창업트렌드' 등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주는 강좌를 개설한 결과, 지난해 6월 창업아이디어 대회인 제 11회 로켓피치 경연대회에서 재학생이 LED봉과 무선통신을 이용한 자동매스 게임으로 최우수상을 탔다.

특별취재팀

## '학생눈높이'서 취업 - 창업 집중평가... 성적순 대학서열 깬다

### ● 2년 연속 최우수대학들

지난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가운데 절반은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주인공이다.

4학기 제도로 강도 높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우송대는 올해도 9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자랑했다. 학생들이 소규모로 그룹을 이뤄 워크숍 형태로 자신의 특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취업지원팀을 찾아 진로 개발에 도움을 얻는 분위기다.

특별취재팀

### ● "노력만큼 위상 변화" 지방대 환호

이용상 우송대 입학취업처장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진로설계 등의 단계를 통해 고부가가치형 인재로 졸업하기까지 대학이 열

마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드림대학은 이런 관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용한 평가"라고 밝혔다.

\*상기내용은 2014년 8월 26일,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